

**형지I&C, 블랙 프라이데이 기점으로 큰 폭의 아마존 미국 매출 성장세 기대**

- ▶ 아마존 미국 예약(YEZAC) 셔츠 9월 판매, 4월 대비 1,500% 매출 신장
- ▶ 오는 15일 아마존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사전 캠페인으로 라이트닝 딜 오픈
- ▶ 25~29일 이벤트 기간 동안 블랙 프라이데이 독점 할인 및 익스클루시브 참여

<2021-11-03> 패션기업 형지I&C(011080, 대표이사 최혜원)가 미국의 물류난,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큰 폭의 아마존 미국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형지I&C는 아마존 미국 입점 이후 9월까지 매월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아마존 미국에서 예약 셔츠(YEZAC Men's Long Sleeve Cotton Dress Shirt)의 9월 판매는 올해 아마존 진출 첫째 달 시기인 4월 대비 1,500%의 매출 신장을 보였다.

형지I&C는 추후 있을 미국 쇼핑 최대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 11/25~29)를 겨냥해 추가적으로 베스트셀러 제품을 선적했다. 현재 화물을 실은 배가 미국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으며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에 아마존 물류센터에 안정적으로 입고될 예정으로 쇼핑 시즌을 대비하고 있다.

회사는 오는 15일 블랙 프라이데이의 전초전인 라이트닝 딜(아마존의 특가 상품 판매 페이지)을 오픈할 계획이다.

또 메인 기간인 11월25일부터 29일까지 블랙 프라이데이 독점 할인에 참여해 홍보를 극대화하며, 최소 20% 할인 쿠폰 진행으로 구매시 할인되는 블랙 프라이데이 익스클루시브 행사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형지I&C 관계자는 "미국 리테일러들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연말까지 한 해 매출의 70%를 얻는다"며 "형지I&C도 베스트셀러 제품이 안정적으로 입고되면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연말까지 큰 폭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